



폭염 너머 가을 오는 소리

구례군 산동면 온천지구 테마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22일 여름을 이겨내고 가을 소식을 전하는 조롱박과 수세미 등을 신기한 듯 쳐다보고 있다. <구례군 제공>

담양-삼지내, 무안-월선, 순천-향매실, 신안-내양마을

외국인 체험관광 '선봉장'

'Rural-20 프로젝트' 선정...관광상품 개발 등 지원

전남도는 농어촌 체험관광의 세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Rural-20 프로젝트' 대상 마을에 담양 삼지내마을을 비롯한 도내 4개소가 선정돼 외국인 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2일 밝혔다.

'Rural-20 프로젝트'는 농식품부에서 2010년 G-20 정상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국의 맛과 맛을 홍보한 국내 대표 체험 휴양마을 사전답사 실시를 계기로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촌문화와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홍보해 농어촌 체험관광의 세계화와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에 선정된 마을은 담양 삼지내마을, 무안 월선마을, 순천 향매실마을, 신안 내양마을이다. 이들 마을은

앞으로 체험, 자연, 전통문화, 웰빙여행 등 주제별 여행지를 개발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체험단을 모집해 사전답사를 추진한다.

또한 홍보물 개발과 홍보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개발, 외국인 기자단 운영, 체험 UCC 공모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이 이뤄진다.

마을별 특색에 맞는 외국인 방문 지원, 국내외 인바운드(국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여행객 모집) 여행사 사전답사와 국제회의 참가자 등 해외 방문 중심의 체험단을 구성하고 체험마을을 연계한 관광 연계상품 개발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자유투어버스(K-Shuttle) 방문지로

'Rural-20 프로젝트' 선정마을을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광공사, 도,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농어촌체험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조용익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4개소가 선정된 것을 계기로 전남의 특색있고 다양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외국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됐다"며 "전남의 전통문화를 담은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한편 농어촌 체험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실있는 체험관광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에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강진 달마지마을, 곡성 가정마을, 광양 도선국사마을, 담양 무월마을, 영암 구림마을 등 7곳이 'Rural-20 프로젝트' 대상 마을로 선정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전남 친환경 농산물 홍보

도, 오늘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박람회 참가

전남도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3일부터 3일간 열리는 친환경 유기농 무역박람회에 참가해 지역의 고품질 유기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관측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박람회에는 전남 18개 시군의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22개 단체가 참여해 유기농 쌀을 비롯한 매실, 비파, 울금, 함초, 석류, 유자 등 150여 품목의 지역 특산물을 전시

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한다. 특히 추석을 앞둔 행사인 만큼 전국 친환경농산물의 60%를 생산하는 '녹색의 땅' 전남을 적극 알리고 현장 판매는 물론 구매 접수창구를 운영, 추석 이전에 배달할 계획이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전남지역의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수도권 소비자에게 추석 선물로 안성맞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

'소송비 청구' 진퇴양난 영암군

150여 만원 받으려면 청구비용만 220여 만원

주민 화합 차원 미회수 땀 선거법 위반 소지

영암군이 주민들과 갈등 속에 벌인 법정싸움에서 승소했으나 소송비용 청구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송비용 150여 만원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220여 만원의 청구비용이 소요돼 주민화합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미회수할 방침이지만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도포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인허가를 두고 주민대책위원회가 제기한 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대책위측의 주장에 대해 "이유 없

다"며 기각했다.

앞서 주민들은 감사원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이마저 "행정절차상 하자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감사원에 이어 법원에서도 영암군의 행정처리가 관련법규와 행정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로 결론내리면서 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영암군이 패소한 주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주민 114명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소송 비용 150여 만원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

영암군은 당초 소송비용 회수에 나설 경우 필요한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이번 소송으로 인한 주민들과의

갈등관계를 개선하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회수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제는 소송 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제기된 데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 비용 미회수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영암군이 소송에 승소하고도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적절할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의회 의결을 통한 채권 면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멘토에 갈증나고
힐링에 목마르는 시대!

명랑 해결단

그들을 위한
명쾌한 정답 프로그램!





매주 월요일 밤 11시

이윤석

이유리

서경석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18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4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완도 16

스카이라이프 13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20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8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6

IPTV 18

CHANNEL A www.ichannelA.com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 A**

거문도·백도, 한국 명 관광지 3위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백도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지 3위에 선정됐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최근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 관광 100선' 사이트(www.mustgo100.or.kr)를 통해 국내 관광지 126곳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경 새재가 1위, 창녕 우포늪이 2위, 거문도·백도가 3위를 차지했다.

거문도·백도는 모두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다. 거문도는 동도·서도·고도 등 바다 위에 병풍인 친 모습의 세 개의 섬으로 구성됐다.

남해안 최초이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 1905년 불을 밝힌 등대 주변은 특히 풍경이 아름답다.

백도는 국가 명승 제7호로 지정될



거문도 등대주변 모습.

만큼 기암괴석 등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여수시는 오동도, 금오도 비렁길

등 지역내 관광지에 대해서도 한국관광 100선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김철화기자 chkim@

여수·광양항 크루즈 관광 중국에 알린다

전남도, 시장선점 위해

언론인 초청 사전답사

전남도는 아시아 크루즈 관광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중국 크루즈 관련 언론인 10여명을 초청, 23일부터 이틀간 여수·광양항 및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전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답사에 참가하는 중국 언론 관계자는 북경, 상해, 항주 등 지역의 관

공분야 언론 잡지 편집기자로 전남의 항구 및 관광지를 중국 관광객에 친숙하게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전남은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8만급 크루즈전용 여수항을 확충하고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세계적 국제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크루즈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일본 퍼시픽 비즈니스가 첫 입항한 이래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때 12회 1만7000명

이 방문했고 올해는 24차례에 5만명, 내년에는 34회에 10만명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에는 중국 압웨이 인센티브 크루즈가 8회에 걸쳐 3만명을 비롯해 14만급 대형 크루즈선만 22회 전남에 입항한다.

전남도는 크루즈 전용부두인 여수항에는 8만급 이상 입항이 불가능함에 따라 컨테이너 전용부두인 광양항을 적극 활용해 대형 크루즈선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